

채소순례

②

멜론

[학명] Cucumis melo LINN.
(Cucurbitaceae, 박과)

[영명] Melon, Sweet melon
Common melon, Muskmelon

[중국명] 香瓜, 甜瓜

내 령

참의(Cucumis melo LINN)는 대별(大別)하면 동양계(東洋系)와 구미계(歐美系)로 나눌 수 있다. 마스크멜론(Muskmelon)을 비롯해서 구미계는 보통 멜론(Melon)이라 부르고 동양계의 참의와는 다소 특성이 다른 방향으로 발달되어 왔다. 멜론은 온대지방에 널리 재배되고 있으나 열대지방에 있어서도 건조지대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영명의 멜론(Melon)은 그리스어(Greece語)의 멜론페론(melop-eon, 즉 apple shaped melon, melo는 apple, pepon은 melon을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이 우 승

가리킴)으로부터 멜론이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학명 쿠쿠미스(Cucumis)는 쿠쿠마(Cucuma) 즉, 라틴어의 냄비 또는 가운데가 비어 있는 식기류(食器類)의 뜻이 있고 과실을 식기류로 사용했거나 또는 그 모양이 식기류와 닮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멜로(melo)는 사과를 가리키는 것으로 과실의 모양으로부터 착상(着想)된 것이라고 한다.

多型集積현상으로 기원 및 원산지를 단정하기 어려워

멜론의 원산지(原產地) 및 재배의 기원(起源)을 규명코져 많은연구가 행해져 왔으나 야생종(野生種)의 분포지역이 넓고 과실의 형질은 변화가 매우 심하며 유전적으로도 다형집적(多型集積)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오늘날 재배되고 있는 멜론의 기원이나 원산지를 밝히기에는 어렵다.

니제르江 연안의 기네아 원산설이 유력

아시아는 2차 原生中樞地

아프리카의 니제르강(Niger 江) 연안의 기네아(Guinea)가 원산지 또는 재배의 기원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아프리카를 벨론의 제 1차 원생중추지(第1次 原生中樞地)로 하고 아시아·중근동(아라비아동지)을 제 2차 원생중추지라고 하는 설(說)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아직 정설은 없다. 아무튼 고대 이집트 중앙아시아로부터 중국까지 확대되고 이들지역에서 중요작물로서 재배된 것은 확실하고 많은 기록과 성서 및 벽화등에 멜론에 관한 것이 남겨져 있다. 드·칸돌(De Candolle)씨에 의하면 재배는 아프리카와 인도에서 각각 시작 되었다고 한다.

聖書에도 관계故事 있어

이집트에서는 옛부터 멜론이 재배되었다고 하는데 성서의 민수기(民數記, 13C B. C.)에도 멜론에 관한 고사(故事)가 있고 라인하르트(Reinhardt, 1912)씨에 의하면 고대 이집트의 구신제국(舊新帝國 28C~11C B. C.)에서 재배되었다

는 것이 사원(寺院)의 벽화(壁畵) 속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로마의 프리니(Pliny, 23~79 A. D.)씨는 그의 저서에 벨론을 페포네스(Pepones)라고 기록하고 있어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애용되었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르네상스(Renaissance, 14~16C)시대에 그리스·로마 및 이집트등지로부터 우량종이 도입되고 그후 품종개량과 재배법의 개선이 남부 유럽을 중심으로 행해졌는데 캔탈루우프(var. cantaloupensis), 네트멜론(Netted melon, var. reticulatus) 및 겨울 멜론(Winter melon, var. inodorus)이 성립되었다. 즉, 11~15세기 사이에 중앙아시아등지로부터 먼저 이태리로 전파되었고 그후 15세기 말에는 이태리로부터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전파되었는데 네트멜론과 캔탈루우프는 남부유럽에서 노지멜론으로 발달하여 북부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영국에서는 1570년 스페인 또는 자마이카로부터 도입된 네트멜론이 온실내에서 특수재배가 발달하여 영국계 온실멜론이라 불려지는 품종군이 성립되었다. 제랄드(J. Gerard)씨는 그의 저서 "Herball"(1597)에 품피

유럽에는 르네상스시대에 로마등서 전파

온스(Pompions)라는 이름으로 몇종의 멜론을 그림과 함께 기록하고 있다. 또 프랑스에서 멜론의 재배가 일반화된 것은 1629년이후라고 한다.

아메리카대륙에서는 컬럼버스가 1494년에 서인도제도의 이사벨라섬(Isabela島)에서 멜론이 재배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1516년에 중앙아메리카에 전해지고 1535년에는 북아메리카의 몬트리드(Montred)의 토인들은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1540년 뉴·멕시코(New Mexico)에서는 멜론에 관한 몇종의 기록이 발견되었고 1609년에는 버지니아(Virginia)에서, 1629년에는 하드슨강(Hudson River) 연안에서 재배되었다고 하며 그후 기후에 맞고 풍토에 적응함으로 전역에 전파되었다.

1870년이후부터 산업적 발달

산업적으로 발달된 것은 1870년 이후라고 하며 품종 재배기술수송장등이 발달해서 오늘날 특수한 멜론산업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켈털로우프라는 이름으로 노지재배되고 있다. 이 켈털로우프는 유

렵의 켈털로우프와는 다르고 분류학상으로는 Var. reticulatus에 속하고 있다. 또한 1878년에는 소아시아로부터 커사아버(Kassaba)가 1895년에는 알제리아(Algeria) 및 남부프랑스로부터 허니듀우(Honey Dew)가 도입되었다.

이란등지서는 품질개량활발

중동과 중앙아시아쪽에서는 옛부터 멜론이 넓은 지역에서 재배되고 이란과 투르케스탄(Turkistan)에서는 품종의 발달이 현저하고 그품질은 높이 평가되었다. 이들지역은 건조한 지대이므로 멜론은 본래부터 건조한 공기를 좋아하는 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에서는 히말리야산맥으로부터 코모린곶(Cape Comorin)에 걸쳐 광범위하게 멜론(Common melon)이 야생하고 있다고하나 재배에 대한 옛기록은 없고 무갈제국(Mughal 帝國, 1526—1858)시대에 인도의 우량한 멜론은 사마르칸드(Samarkand), 바다산(Badakhshan) 및 카불(Kabul)로부터 수송된것이라고 한다. 16세기 화란의 여행가 린스코텐(Linschoten)씨는 인도산의 멜론이 스페인산과는 비

인도에서는 各洲의 주요 品種 중 하나

교할수 없는 열등품(劣等品)으로 사랑을 뿌려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급품은 Kabul산 「살다」

당시 인도에서 제 1급의 멜론은 살다(Sarda)라고 부르는 카불산(Kabul産)의 품종으로 인도국내에서는 재배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품종은 1894년 영국의 큐~왕실식물원(Royal Gardens Kew)에 보내져서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영국에서 재배된 살다(Sarda)의 과실이 유럽으로 수출되어 겨울과실로서 비싼값으로 팔려졌다고 한다.

2급품은 품종명 불명

다음 제 2급품은 또한 카불산의 품종으로 이것은 인도국내에서도 재배되었으나 품종명은 밝혀져 있지 않다.

3급품은 「사훼다」로 흰멜론

제 3급품은 인도국내산의 최고급품으로 사훼다(Safedah)라고 하며 라크노우(Lucknow)부근의 고

마티강(Gomati江)의 유역에서 재배된것이 유명하고 보통 흰멜론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인도의 멜론은 연합주(連合州), 우터루·프라데시(Utter Pradsh)를 비롯해서 비하르(Bihar), 펀자압(Punjab), 라자스탄(Rajasthan)등 북부인도 일대와 남부에서는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및 마드라스(Madras)가 생산의 중심이고 인도내의 각주(各州) 사이의 중요 교역품의 하나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일종의 파리(Bactrocera Cucurbitae)가 가해해서 재배상의 문제가 되고 싱가포르(Singapore)에서는 이에 대한 기생충을 도입하여 겨우 재배가 가능하게 되었다한다. 그후 재배품종은 주로 영국으로부터 도입한 것으로 만생계의 품종이 많다고 한다.

동양계의 멜론은 참외와 김치오이인데 이들은 다같이 멜론의 변종(變種)이고 서로 교잡이 잘 된다. 참외는 인도원산(北村, 1950) 또는 중국에서 자연발생한 것(Bretschneider, 1882)이라는 설이 있고 중국의 독자적인것으로서 옛날 예기·시경(禮記·詩經, 403~221 B. C.)에 참외(瓜)의 기록이 있으

필리핀, 영국계 만생품종 많이 재배 되고

며 6세기 전반기에 산둥성(山東省)을 중심으로 저술된 제민요술(齊民要術, 530~550 A. D.)에는 참외에 관한 품종과 재배법이 기술되어 있다. 현재 신강성(新疆省)에서 재배되고 있는 투르케스탄(Turkestan)계의 함밀과(哈密瓜)는 맛이 좋은 것으로 유명한 것이나 중국의 기후에 적합되지 못하고 중근동계(中近東系)가 중국의 서부까지만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서는 동양에 적응하는 참외가 일찍부터 성립되어 옛부터 화북(華北)을 중심으로 재배가 성하였고 화중(華中)까지 전파되어 크게 발달되었다. 1972년 중국의 후남성(湖南省) 장사시(長沙市)의 교외에서 기원전의 마왕퇴 1호전한고분(馬正堆一號前漢古墳, 前漢時代, 楚의 長沙丞相인 第一代軟侯로 封해진 利蒼의 夫人으로 前漢 文帝 12年 [179B. C.]以後 數年中死亡, 167-164B. C.로 推定, 史記에는 利倉이라 記載됨)에서 미이라가 발견되었는데 미이리를 해부한 결과 주인공의 위(胃)로부터 참외의 종자가 138립이 나왔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전한시대(前漢時代 B. C. 206~A. D. 5)에 이미 참외가 보급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다.

국내에는 중국의 화북서전래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三國時代) 또는 그 이전에 중국의 화북(華北)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고문헌(海東釋史, 高麗史)에 의하면 통일신라시대에 황과(黃瓜)와 함께 참외(甜瓜, 王瓜)에 대한 사실(史實)이 전해지고 있으며 중국의 고문헌의 기록과 우리나라의 지정학적(地政學的)인 관계를 고려하면 통일신라시대에는 이미 재배가 일반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숙종(肅宗) 2년(A. D. 1104) 고려청자(瓜形靑瓷)를 비롯해서 참외를 형상한 자기와 주전자는 예술품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과실에 단맛이 있고 독특한 향기가 있어 여름철 과실로서 기호에 맞아 이 시기에 참외의 재배가 융성하고 생활이 안정되어 문화가 창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참외(眞瓜)는 외(瓜)가 오이를 가리키고 있는데 참외의 “참”은 순수한 우리말로서 우리말 큰 사전에 보면 “허름하지 않고 썩 좋은 뜻을 나타내는 말”

前漢時代 「미이라」 胃에서 참외씨 발견

통일신라때는 이미 재배가 일반화된 듯

이라고 하는바와 같이 오이보다 맛과 향기가 썩 좋다는 표현인 것이다. 우리나라 고농서(古農書)에 참외(眞瓜)의 기록은 지봉유설(芝峰類說), 산림경제(山林經濟), 고사신서(攷事新書)등에 기록이 있는데 참외(眞瓜)는 속명(俗名)으로 불리어져 왔다. 참외(眞瓜)는 일본말(眞桑瓜, 眞瓜)을 낳게한 원류(源流)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기원 전후로부터 에도(江戸)시대까지의 유적(遺跡)에서 출토된 종자를 조사한 결과로부터 참외는 기원전후(彌生時代, B. C. 3C. - A. D. 3C.)에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5세기경(應神天皇時代)에는 한반도(韓半島)로부터 귀화인(歸化人) 또는 사신이 전파한 것이라고도 한다. 일본에서 속설(俗說)에 5세기경에 참외가 외(瓜, 오이)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파되고 참외(眞瓜)의 일본말(眞桑瓜)이 한국

으로부터 온 어원(語源)이라고 한다. 즉 옛날 기후현(岐阜縣, 美濃國 本巢郡眞桑村)에서는 귀화인이 있었는데 당시 한반도로부터 여러 가지 문물이 전해진 속에서 참외가 발생되어 그맛이 좋았는때 이 참외가 발생된 마을(眞桑村)과 참외(眞桑瓜)의 이름이 붙쳐지고 자리에 전파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동북지방과 구주(九州) 지방에서는 참외(眞瓜=마우리, 眞桑瓜=마꾸와우리, 甘瓜=아마우리)라는 이름이 불리어지고 있다고 한다.

근년 세계의 멜론생산량은 355만톤(1972)이었는데 유럽이 136.1만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북아메리카, 91.3만톤, 아시아 81.5만톤, 아프리카 39만톤, 남아메리카 7.1만톤의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스페인 61만톤, 이태리 29.2만톤, 이집트 23만톤, 멕시코 21만톤, 이라크 20만톤 이었다.

